

사회

구타로 숨진 중학생 '병사'로 판정

진단서 발급 대학병원 의사 입건

'엽기 훈계' 사망 사건 수사 중 드러나

가솔 버릇을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체육관 전·현직 관장과 사범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중학생(광주일보 7월 22일 6면)이 입원했다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가 입건됐다.

이 의사는 환자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상해일 정황이 경우 타살이나 변사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진단서로 인해 숨진 중학생이 구체적인 사인 규명이 곧바로 화장돼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감춰질 뻔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남대병원 전공의 C(30)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5월 26일 병원을 찾은 A(13·광주 모 중학교 1년)군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전날 밤 특공무술 체육관 각목 등으로 집단 구타를 당해 이 병원을 찾았고 치료 과정에서 숨을 거뒀다.

C씨는 A군의 어머니(38)가 "선배들로부터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A군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外因死)가 아닌 '병사'(病死)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군의 어머니(38)는 병원 측으로부터 아들이 병사했다는 진단서(다발성 장기부전)를 발급받은 뒤 곧바로 화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사체를 검안해 법의학적으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외인사로 기록하고, 사체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C씨는 경찰에서 "관련법을 알고 있었지만 경험에 비춰 A군의 상처가 의식불명에 이를 정도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응급조치하는데 신경쓰느라 신고할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 자식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훈계차원에서 교육을 부탁한 만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 5월 25일 밤 11시 20분께 광주 A체육관에서 자신이 다니던 광주 A체육관 전직 관장 B(32)씨 등 4명에게 목검 등으로 맞아 숨졌다.

B씨는 가솔하는 아들의 버릇을 고쳐 달라는 A군 어머니(38)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카메라 단속 방해장치 차 몰고 경찰서 찾아온 '간 큰' 민원인

"노트북 분실" 신고했다 들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장치가 달린 승용차를 몰고 경찰서에 온 '간 큰' 민원인이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50)씨가 광주시 남구 방림동 남부서를 찾아온 것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A씨는 최근 '차량에 보관해 둔 노트북을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는 신고를 했다가 오인신고로 밝혀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에 달린 수상한 장치(사진)가 형사들의 눈에 띄었다. A씨의 차량 번호판에는 작은 LED 전구 수십 개가 달려있었다.

형사들이 오인신고 관련 조사를 마친 A씨를 상대로 차량에 달

린 '문제의 장치'를 확인한 결과 속도나 신호위반을 할 경우 밝은 조명이 들어와 번호판이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막아주는 불법 장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신의 차량에 불법 장치가 장착된 사실을 깨닫고 '당당히' 차량을 몰고 경찰서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366) 김중두



회사돈 86억 횡령

조선사 대표 영장

전남지방경찰청은 26일 수석익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려고 회사 재무대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목포 모조선사 대표 C(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경리 이사 S(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5~2010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86억 상당을 횡령한 뒤 이를 감추려고 단기 대여금을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 회계 처리 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500억 원에 달하는 상업채권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회사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등 상업장부를 부정하게 기재, 법원의 회계정리채기 결정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관련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잡고보니 에이즈 감염자

북부경찰, 3인조 강도범 검거... 1명 부교 확인

광주 주택가에서 강도행각을 한 3인조 강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 격리조치했다.

광주북부경찰은 25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저항하는 가족을 폭행한 A(26)씨 등 3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일 새벽 2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사는 B(48)씨 집에 침입해 B씨 부부와 딸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저항하자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북구 일대에서 속칭 '꼭치기' 범행을 하려다 대상을 찾지 못해 B씨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 돼 조사 후 별도로 격리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호남 역사문화교실 입소식. 광주시새마을회가 마련한 영·호남 역사문화교실에 참여한 광주와 대구·울산지역 중·고교생 125명이 입소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6일 개강한 역사문화교실은 28일까지 2박3일 동안 광주시 북구 매곡동 광주 적십자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다.

가짜 환자 보험료 챙긴 병원 사무장 영장

보험금 부당 수령 의사·환자 등 100명 입건도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한 뒤 입원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 운영 사무장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광주 풍암 정형외과 사무장인 변모(50)씨와 동생(40) 등 2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 고용 의사 오모(63)씨와 허위 보험금을

타낸 환자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형제는 지난 2005년 4월께 월급 5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오씨를 고용해 광주시 서구에 정형외과를 개설한 뒤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가벼운 증상의 환자 100명에게 입원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타내는 등 최근까지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치료 기록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환자 1800명의 의료비를 청구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100명은 입원이 쉽고 입원 기간 중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다는 소문을 듣고 이 병원을 찾아갔으며, 환자 1명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전남서 올 첫 발생

전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가족과 함께 문저리(망동어과 물고기)회를 먹은 강모(여·66·순천 거주)씨가 이를 후 팔 부위에 수포가 생기는 등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증상을 보여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최종 확인됐다. 강씨는 평상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회를 먹은 다음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갯벌에서 개를 잡았고 문저리를 낚았으며 먹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필수기자 bungy@

"내 여친 왜 만나" 둔기 휘두른 조폭들

○같은 조직폭력 단원의 여친과 알고 지내는 남자를 끌고 가 폭행한 뒤 금품까지 빼앗은 10대 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서행.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모 조직폭력단 행동대원 조모(19)군 등 5명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초등학교 뒤편 공터에서 흥모(19)군에게 둔기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현금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같은 조직폭력단 소속인 이들은 흥군이 조군의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 자신들에 대한 협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총장 재직기간도 교수 월급줘야"

법원, 황지우 前 한예중 총장 교수직 인정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중) 총장 재임 중 사퇴한 시인 황지우(본명 황재우)씨가 여전히 교수직에 있다고 인정, 국가가 밀린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황씨가 국가를 상대로 내 교수직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황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국가는 황씨에게 주지 않은 급여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씨는 한예중 교수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4년 임기의 한예중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200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중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총장을 사퇴했을 뿐 교수직까지 사직한 것은 아니다"며 교수직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학교 측이 거부하자 한예중을 설립한 국가를 상대로 교수직위를 확인하고 총장사퇴 후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교수 직위는 당연히 상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총장직을 사퇴했다고 교수직위까지 당연히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8월 1일